

총선 판세 점검 · 관전 포인트

현재 66명 등록... '예선'이 '본선'보다 힘들다

▲신당 출현에 의한 무소속 바람... 무계 추 어느 쪽으로 가나

올해 총선 예비후보등록의 특이점은 무소속(39명)이 크게 증가했다. 가장 큰 이유는 야권 분열이 꼽힌다. 안철수, 천정배, 박주선 등 호남발 신당을 통해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등록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에 새누리당 8명, 더불어민주당 18명 등으로 어느 정도 균형 있는 무계 중심을 유지했다.

신당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경선 경쟁이 불가피해 또 다른 불거리로 손꼽힌다. 예선이 힘든만큼 신당 바람몰이도 예상된다.

실제로 전북 11개 선거구 중 무소속 등록 후보 모두가 신당을 통해 경선 출마한다고 가정하면 완산갑 6명, 완산을 6명, 익산갑 4명, 익산을 5명, 남원순창 6명, 김제완주 7명 등 예선이 본선보다 힘들 정도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정음시, 군산시 지역구, 최후의 승자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선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음에 유성영 의원, 군산에 김관영 의원 등이 바로 그곳. 이들 지역민들이 지역 사정에 밝은 두 의원을 재선택할지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관측통들은 군산보다는 정음에 대한 혼란을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연이은 3선 당선이 없었던 만큼 유

성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간 치열한 각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2일 표창원 등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사들이 정음시를 방문, 김생기 정음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하정열 예비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김생기 시장이 도움을 줄 경우 유성영 의원과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음지역 정치 원로들의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지지율이 기정사실화 되면 각축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군산 선거구도 현재까지는 김관영 의원의 우세가 점쳐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인사를 전략공천하느냐에 따라 총선 승리나 패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번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령 폭풍은 새누리당에도 휩쓸리고 있다.

그동안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여당 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올해 총선에서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지만 최근 신당 바람은 무시하기 어려운 악재가 됐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선거구도의 유희성이 커진 것이 오히려 새누리당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아당 난립이 표를 분산시켜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접전 지역에서 야권표가 분산되면 여



올해 4월13일 치러지는 20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여는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야당 신당간 통합, 선거구재획정 등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 가고 있다. 예비등록후보자들만 66명. 경쟁률은 6:1이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예비후보들간 치열한 경쟁과 출마 예정자들의 출마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에 본보는 총선판세와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를 짚어 봤다. /편집자 주

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예컨대 올해 완산에 출사표를 던진 정운천 예비후보의 경우 지난 18대 총선에서 35.8%의 득표율을 기록했었다.

3자 구도인 이번 선거에서도 비슷한 득표율을 받는다면 '깜짝' 승리를 거머쥘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동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

올해 총선에서 정동영 전 의원의 독자세력화 여부가 선거 판세를 뒤엎을 대형 이슈로 꼽힌다.

정 전 의원의 출마여부 자체가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볼 점은 대선주자였던 정 전 의원이

큰 정치를 포기하고 지방에 내려왔다는 부정적 시각도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계속 회자되고 있는 점.

그만큼 '정 전 의원'의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위대롭게 흔들리던 전북 정치의 중심점이라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른바 전북정치 '정동영 역할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정 전 의원의 독자세력화를 통해 전북 정치 토대를 마련한다면 새로운 호남 정치의 큰 틀을 마련할 것이란 기대감이 부풀어 있다.

▲여성 예비후보 여전히 적어..익산을 여성 의원도 배출

이번 총선에서도 여성 예비후보들은 성은 순, 조배숙, 김영희 등 단 3명에 불과하다.

일부 정당에서 여성 신인 후보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정치권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등록이 저조하다.

이마저도 익산을 선거구에 2명이 불렀다. 익산을 선거구는 조배숙 전 의원, 전정희 현 의원에 이어 또 다시 여성 국회의원을 배출 할지도 관심이다.

조배숙 전 의원과 전정희 현의원은 19대에 이어 20대에서도 맞붙게 됐다.

조 의원이 국민의당 경선에서 승리 본선에 오른다면 여성 후보들이 경쟁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신광영 기자

세계태권도선수권 6월 22일 개막 확정

30일 까지 9일간 열려...도, 조직위 구성 등 준비 만전

전북 무주군 국립 태권도원에서 개최되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최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4일 전북도는 WTF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으로부터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최일정을 올해 6월 22일부터 6월30일까지(9일간)로 확정·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2017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련,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조직위 출범 등 대회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우선 도는 이번 대회를 다른 대회와 차별화 하도록 중앙·지방의 전문성을 갖춘 역량을 갖춘 인사 총44명(위원장 2, 부위원장3, 집행위원 15, 감사 2, 일반위원 42)으로 구성되는 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도는 이에 대한 창립총회와 출범식을 오는 3월22일 관계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해 협력할 것을 요청하고 범 도민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대회 홍보를 위해 유치한 리우올림픽 참가 국제심판·코치 초청워크숍을 오는 5월 무주태권도원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대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태권도원 진입도로를 개선하고 태권도수련관을 신축하는 한편 오는 3월에는 태권도 진기발기 페스티벌을 통해 참여분위기 확산 및 태권도원 활성화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올림픽 다음으로 권위있는 대회이다. 도는 이번 대회유치로 인해 전북도 브랜드 가치의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약 200억 이상의 대회 유치성과(경희대 MIC

통계정보센터 분석 : 생산유발 108억, 부가가치유발 61억, 소득유발 42억)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이후 도내에서는 20년만에 열리는 대규모 국제경기로서 지난 해 5월 러시아와 터키를 제치고 유치한 만큼 의미 있는 대회이다"면서 "이번 대회를 역대 최상의 대회로 개최하기 위해 대회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형태로 설립하고 캠퍼 투어 및 홍보 실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167개국에서 각각 선수·임원 포함 2000여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남녀 각 8체급으로 나뉘어 치뤄질 예정이다. /정영수 기자

유종근 전 지사 전주완산갑 출마선언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주완산갑 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지사는 "전북의 자존심을 되찾고 침체된 전북과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전주를 아시아 최고의 국제관광도시, 청년들이 가장 바쁜 도시, 활기찬 도시, 중장년층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전북도당 정동영 전 의장 복귀 촉구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하 더민주 전북도당)이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한 복귀를 촉구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4일 논평을 통해 "정동영 전 의장이 있어야 할 자리는 국민의 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다"고 강조했다. 더민주 전북도당은 "정 의장이 해야 할 역할은 전북 선거 책임이 아니라 야권 총선 승리를 위해 역할을 맡는 것이다. 국민의 당은 폄하를 부려 호남 분열, 전북 분열을 피하지 말고 야권 승리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이용호 예비후보 지역 청년들과 대화 나뉘

국민의당 이용호 예비후보(남원순창)는 지난 3일 선거 사무소를 찾은 지역 대학생 청년 100여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 후보는 청년들의 일자리, 진로, 결혼, 등록금 문제 등 다양한 주제와 고민을 가지고 격의없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 예비후보는 "취업 문제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폭 넓게 보면 사회 문제다. 정치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고 해결해 주어야 한다"며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김정호 예비후보 농특세 농어촌 전액투자

국민의당 김정호 예비후보(완주김제)는 현행 농어촌특별세의 농어촌 전액 부자가 몰살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호 예비후보는 "3일과 4일 삼례읍과 고산면의 재래시장을 돌며 상인과 지역주민을 만나면서 점점 낙후되어 가는 지역 상권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통감했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당선이 되면 전라북도를 농촌진흥청 및 익산식품클러스터 등의 연계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메카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신광영 기자

스피치 · 웅변 · 면접 · 리더십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겸임 교수 · CEO 과정 담당 교수
- 전북대학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 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과정 설치 강사
- 한국스피치리더쉽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쉽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 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교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음,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